

淳昌趙氏의 제례준칙

1. 제례준칙편찬 의의

“뿌리없는 나무없고 조상없는 자손없다”라는 속담과 같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조상의 덕분이다.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예(禮)로서 조상을 우러러 받들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 은택을 추모하는 것은 자손된 자의 당연한 도리이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일뿐 아니라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표시이며 다 하지못한 효도의 연장인 동시에 자손으로 하여금 효성심을 심어주는데 큰뜻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제사를 계기로 일가가 함께 모여서 뿌리를 되돌아보고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는 것도 일가간에 화합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큰 몫을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시류에 따라 산업화의 물결속에 핵(核)가족화로 인해서 제각기 뿔뿔이 헤어져서 살다보니 전통적인 제례의식은 점점 잊혀져가고 조상을 숭상(崇尙)하는 미풍양속은 땅에 떨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엄숙한 제례절차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조상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고취하며 자손들 교육에 참고토록 하기 위하여 이 “제례준칙”을 편찬하는 바이다.

2. 제례의 일반개념

가) 기제(忌祭)

- (1) 기제는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하여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다.
- (2)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 사대봉사(四代奉祀)를 원칙으로 한다.
- (3)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에는 차자나 차손이 주제한다.

- (5) 양위분이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지방대신 사진 또는 초상화를 모시는 것도 무방하다.

이는 재경이사회(92.11.12) 발의에 의거 착수하였으며 그간 원로회의 및 고산대의원회의, 재경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보완된 것입니다.

미진한점은 보완하고자 하니 많은 고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7)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고 가가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
- (8)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이대봉사(二代奉祀)로 하고 제사시간은 일휴우 적당한 시간으로 하며 축문이 없고 술은 한잔만 올리게 되었음을 유념한다.

나) 차례(茶禮)

- (1) 연시제(年始祭)
음력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며 사대봉사(四代奉祀)하고 봉사대상을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추석절제사(秋夕節祭)
음력 8월 보름날에 지내는 제사로서 절차는 연시제와 같다.
- (3) 연시제는 매대신 떡국으로 하고 추석절제사는 송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제수와 절차는 기제에 마르고 기제사와는 달리 차례는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고 축문이 없고 술잔은 한반만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연시제 봉사대상은 기제에 준하고 추석절 봉사대상은 직계조상으로 되어 있음을 유념한다.

다) 묘제(墓祭)

- (1) 시향(時享)이라고도 하며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음력 10월달 정해진 날짜에 종친이 함께 모여 5대조이상 선조의 산소를 찾아 드리는 제사이다.
- (2) 제찬(祭饌)은 기제와 같으나 산신에게 먼저 따로 제사를 지낸다.

3. 제수(祭需)의 진설

가. 제주가 제상을 향하여 신위 모신곳이 북(北)이 되고 오른쪽이 동(東), 왼쪽이 서(西)라고 한다.

나. 진설순서는 제주쪽에서 맨앞줄에는 과일과 조과류, 둘째 줄에는 포와 나물, 간장, 물김치, 식혜 등, 셋째 줄에는 탕, 네째 줄에는 적과 전, 다섯째 줄에는 매와 갯을 다음

에 예거한 바에 의하여 진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조율이서(棗栗柿梨) 또는 홍동백서(紅東白西): 왼쪽부터 대추, 밤, 감, 배순 또는 붉은 과일은 동쪽, 흰과일은 서쪽에 진설한다. 그외의 과일은 순서가 없으며 조과류는 과일줄 끝에 진설한다.
- (2) 생동숙서(生東熟西): 김치(날것)은 동쪽에 나물(익힌것)은 서쪽에 진설한다.
- (3) 좌포우혜(左脯右膾): 또는 왼쪽에 짓갈은 오른쪽에 진설한다.
- (4)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진설한다.
- (5) 두동미서(頭東尾西):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을 향하도록 한다.
- (6) 건좌습우(乾左濕右): 마른것은 왼쪽에 습한것은 오른쪽에 진설한다.
- (7) 접동잔서(楪東盞西): 접시는 동쪽에 잔은 서쪽에 놓는다.
- (8) 우반좌갱(右飯左羹): 메는 오른쪽에 갡은 왼쪽에 놓는다.
- (9) 남좌여우(男左女右): 제상의 왼쪽은 남자(考位) 오른쪽은 여자(妣位)이다.
- (10) 먼(국수)은 건데기만 네째줄 좌측에, 편(떡종류)은 우측에 진설한다.
- (11) 양위분 합설때는 메와 갡, 잔, 시저만 각각 두벌씩 놓는다.

4. 제례순서

가. 제사준비를 마치는 의식(迎神)

- (1) 제관(祭官)들은 손을 씻고 문을 열어 놓는다.
- (2) 제상 뒷쪽(북쪽)에 평풍을 친다.
- (3) 제상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 (4) 지방을 써서 붙이거나 사진 또는 초상화를 모신다.

나. 영혼의 강림을 청하고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의식(降神과 參神)

- (1) 제주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피운다(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 (2) 집사가 제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주고 잔에 술은 조금 따른다.
- (3) 제주는 두손으로 잔을 들고 향불위에 세번 돌린다음 모사그릇(제사때 그릇에 담은 모래와 거기에 꽂는 띠의 묶음)에 조금씩 세번 붓는다(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은 땅이래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강신)
- (4) 빈잔은 집사에게 건네주어 제자리에 놓는다.
- (5) 참사가 전원이 남자는 두번 여자는 네번 절한다. (참신)
* 단, 신주를 모시거나 묘소인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을 뒤에 한다.

다. 첫번째 술잔 올리는 의식(初獻)

- (1) 제주가 신위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분향한다.
- (2) 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건네주고 술을 가득하게 붓는다.
- (3) 제주는 두손으로 잔을들어 향불위에 세번 돌린 다음 집사에게 건네준다.
- (4) 집사는 잔을 받아서 메그릇과 갡그릇 사이 앞쪽에 놓는다. 메그릇의 무릎을 열고 젓가락을 적에 올려 놓는다.
- (5) 합설일 경우에는 잔을 고위(考位) 앞에 먼저 올리고 다음에 비위(妣位)앞에 올린다.

라. 고인을 추모하는 뜻을 써서 신위에게 고하는 의식(讀祝)

- (1) 참사가 모두 꿇어 앉으면 축관이 엄숙하게 축문을 읽는다.
- (2) 독축이 끝나면 제주와 축관이 두번 절한다.
단, 사정에 따라 독축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두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亞獻)

- (1) 제주 다음가는 근친자(주부도 가함)가 올린다. 절차는 초헌때와 같다.

바.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終獻)

- (1) 아헌자의 다음 근친자가 아헌때와 같이 한다.
단, 잔은 7부쯤 부어서 올린다.

사. 진지를 권하는 의식(脩食)

* 첨차(添酌)

- (1) 제주가 다시 신위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집사는 빈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따른다.
- (2) 집사는 술잔을 받아서 종헌때 7부쯤 따라 올린 술잔에 세번씩 첨차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 삼시 정저(搯匙正箸)

- (1) 숟가락을 메그릇 중앙에 꽂는다(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 (2) 젓가락을 어적이나 육적 위에 옮겨 놓는다.

아. 문을 닫고 기다리다 문을 여는 의식(闔門과 啓門)

- (1) 참사자가 모두 밖으로 나가 문을닫고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문을열고 들어온다. 이는 신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잠시 피하는 의식으로서 제자리에 엎드려 잠시동안 있다가 일어수도 되고 생략해도 무방하다.

자. 차를 드리는 의식(獻茶)

- (1) 갡을 내리고 승냥을 올린 다음 메, 세술을 떠서 물에 말아놓고 가지런히 수저를 놓는다.
- (2) 참사자는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선다.

회비내는 작은정성 대중회의 초석된다

우리 대중회는 불행하게도 중재가 없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입장에서 년 5천원의 회비(90, 91, 92, 93년 4년 회비 2만원)마저 외면하는 종친이 계신다면 섭섭한 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회비납부에 동참합시다.

송금구좌	우	국	011775-0046769-11	조 덕 선
	체	협	067-01-221618	
	농	민	025-01-0315-181	

※ 입금자 이름과 파를 필히 명시 바랍니다. 같은 이름이 많아서 파를 명시하지 않으면 회비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회비 및 찬조금 총괄표

회비 납부 기간	납부인원	금액	찬조금	계
93. 3. 31 - 93. 7. 31 (회보 2호 분)	147명	2,940,000	30,000	2,970,000
93. 8. 1 - 93. 11. 30 (회보 3호 분)	111명	2,165,000	550,000	2,715,000
계	258명	5,105,000	580,000	5,685,000

94. 1. 20 在 市 理 事 會 議
(時 與 本 會 前 長 會 議 員 會 議 了 結)

회비를 납부한 종친명단 (순회)

(93. 8. 1 ~ 93. 11. 30)

평택지평	승규병인범	식동	등	막	원	총	회	비
용무병세봉	규제병갑태	복남주태	남주태	주태	태	20,000	×107	
병기병호찬	규병규	주주	(5,000)	태	세	(10,000)	×1	
수기병남홍	규여주	천천	칠주	주	(5,000)	(5,000)	×3	
호연병옥석	규언상	민민	진천	문	등	인원	: 111명	
예주병국홍	규문경	태	갑차	선	확	태	금액:	
문주병기현	배영태	영우	주삼	선	태	의	2,165,000	
병언병택장	규기심	태	소	암	팔	승	찬	조
평기병영상	규태천	태	근	식	천	식	성	중
용기억영	배태배	규	삼	고	범	식	5만	원
현기청주	규창선	탈	동	승	태	일	행	정
석기태형한	규이안	길	주필	선	태	별	5만	원
성주태린원	규관식	득	주	주	문	식	계	: 550,000
용건태영지	규국성	중	주	영	주	품	국	합
용문예천	규곤승	선	오	주	주	천	기	2,715,000원
남기대규	규병완	식	관	주	주	불	명	자
용주	규광	식	행	정	주	철	선	(은)
용만찬	규택	주	길	주	화	식	(5,000)	
양주대	규효	주	정	호	근	용	규	(체)
(10,000)	규병	국	효	선		명	렬	(농)

※ 회보 2호중 다음사항을 바로 접습니다.

1. 청주파 태형은 지목파 태형임.
2. 파불명자 조승웅은 청주파 태근임.

3. 해미파 영섭은 예천파 영섭임.
4. 팔송파 김제는 금식의 잘못된임.